

PARA

WELL

An Exhibition by  
**SIMON MOR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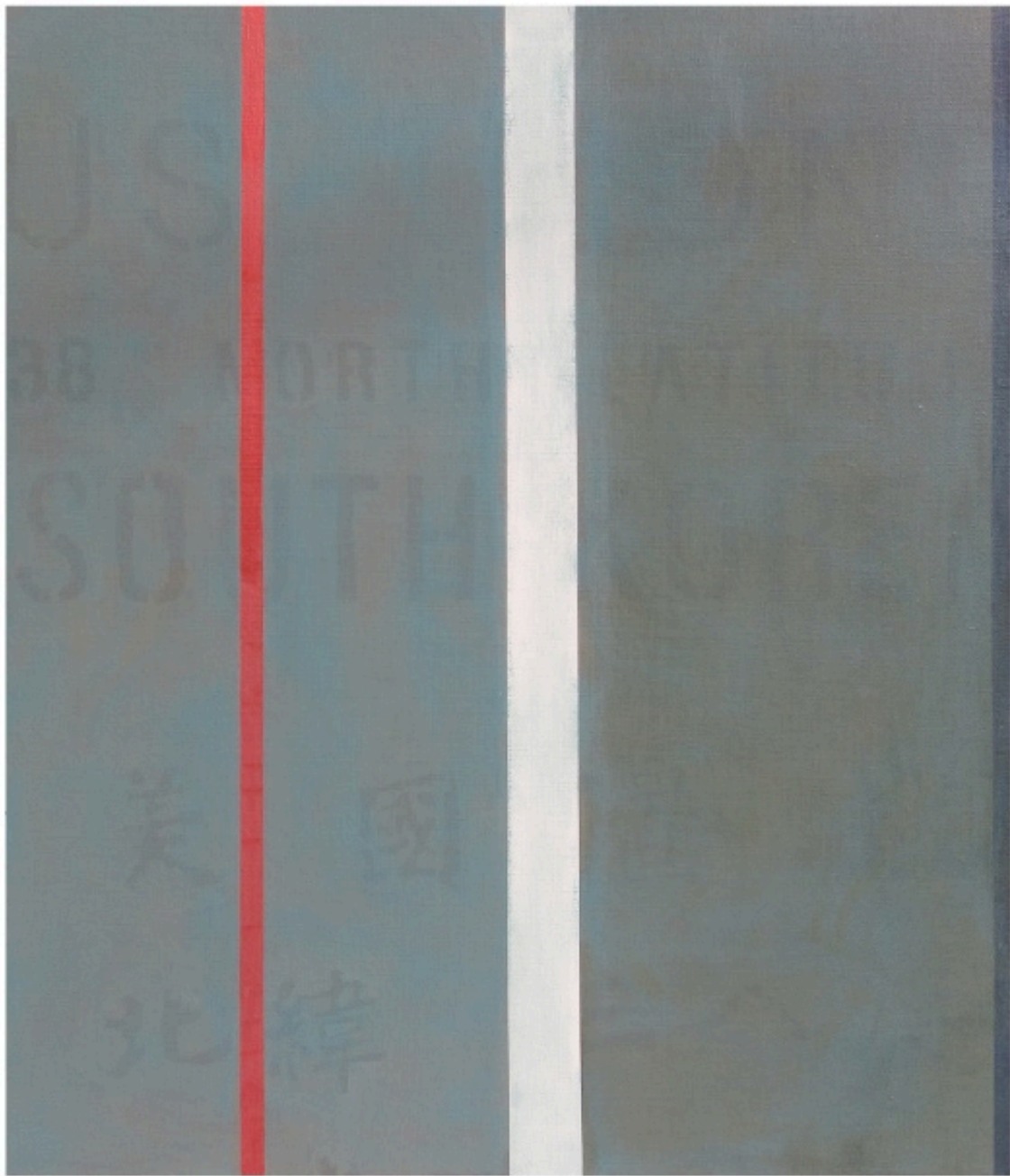




***War Is Over No. 1*, 2018, acrylic on canvas, diptych 160 x 2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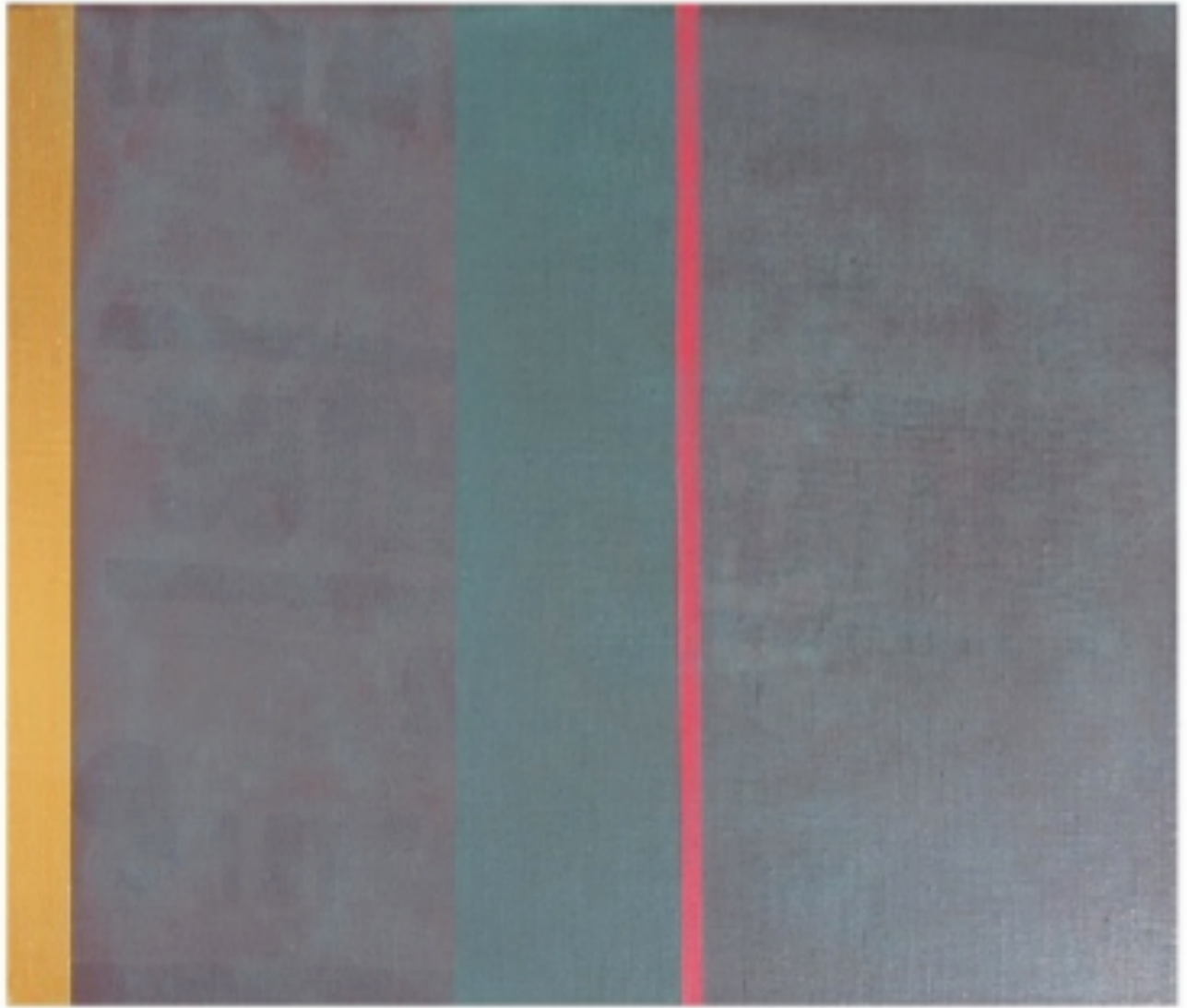
Detail of *War Is Over No 1*



*US Zone, 38 North Latitude, South Korea (1945),  
2017-2018, acrylic on canvas, 45 x 53cm*



*You Are Crossing the 38th Parallel (1950)*, 2017-2018, acrylic on canvas, 53 x 45cm



*38th Parallel (1950)*, 2017-2018, acrylic on canvas, 53 x 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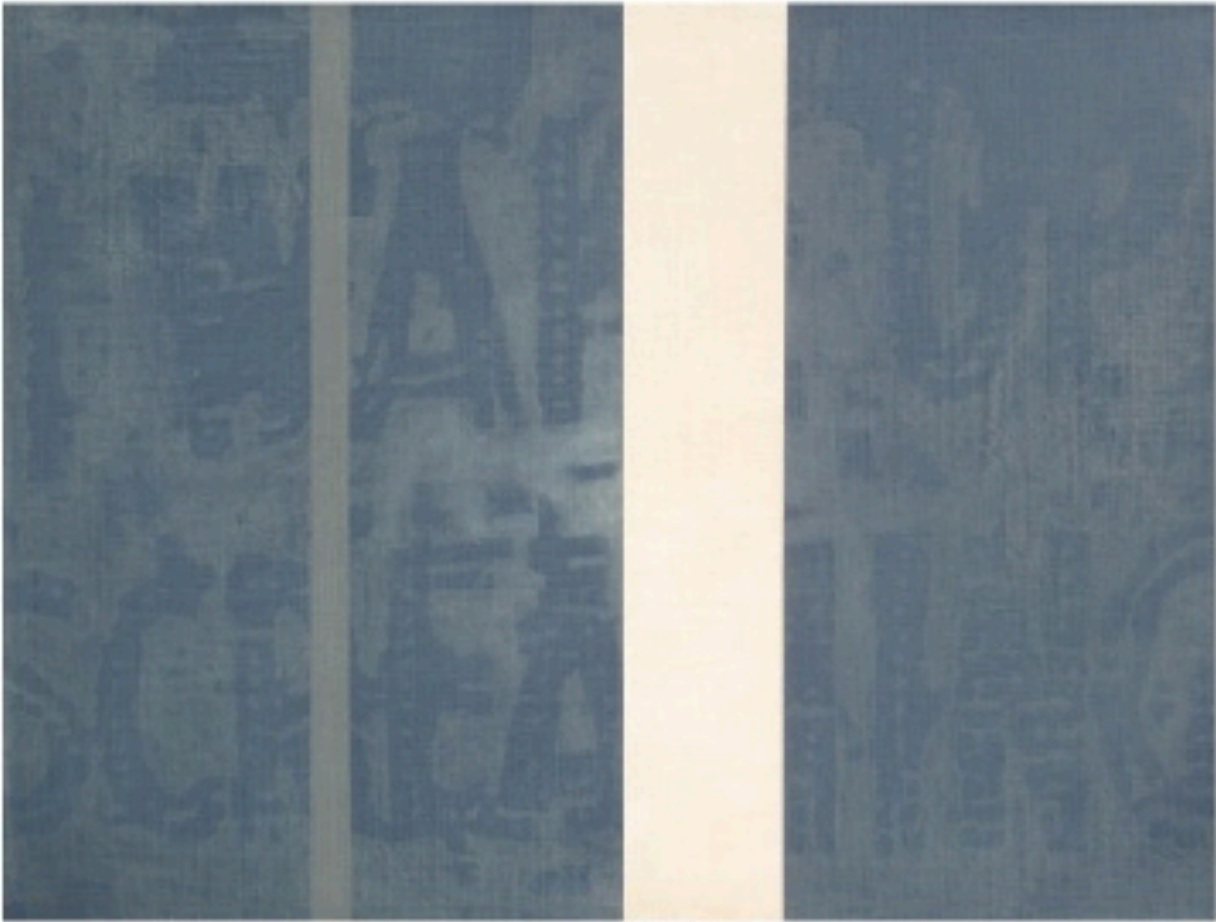


*God Bless America*, 2017, acrylic on canvas, 120 x 96cm



*Act of Violence*, 2017-2018, acrylic on canvas, 30 x 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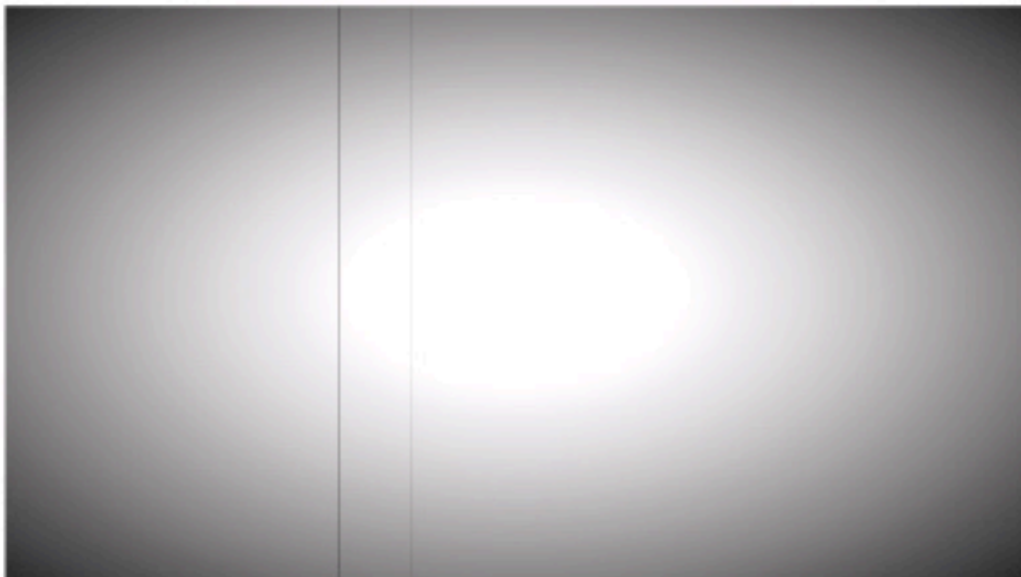




***I Wake Up Screaming, 2017-2018, acrylic on canvas, 30 x 40cm***



***Ministry of Fear, 2017-2018, acrylic on canvas, 30 x 40cm***



*Parallel*, 2018, single channel video, 3 minutes 8 seconds





**PARALLEL**  
Simon Morley

런던과 서울에 기점을 두고, 동서양의 시각예술 및 문화 교류를 추구하는 한미갤러리는,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영국 출신의 작가 사이먼 몰리(Simon Morley)의 개인전, PARALLEL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전시와 이어지는 한미갤러리의 DMZ 특별전 중 하나로서, 73년동안 DMZ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전세계 유일의 독특한 상황을 지닌 대한민국에 대한 작가의 견해와 분석을 회화 및 비디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감각)과 읽는 것(지각)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이먼 몰리는, 화가인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시각 예술(특히 회화 작품)과 책들, 다양한 종류의 담론 혹은 해석들, 그리고 역사적인 출처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또한 구축됩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역사적 출처는 주로 20세기의 역사와 관련이 있으며, 작가는 그중 자신의 작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채택하여 창작에 돌입합니다.

사이먼 몰리는 2010년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2016년부터는 판문점으로부터 멀지 않은 DMZ 근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시 'PARALLEL' 시리즈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재임 중에 있었던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긴장된 상황들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몸소 체험한 것들의 결과입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작가의 견해와 감각을 그래픽적이고 서정적이며, 또한 절제된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모호하고 형체가 불분명한 텍스트, 그리고 기하학적 수직 막대라는 두 가지의 언어로 표현됩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의 한국 전쟁 중 DMZ의 표지판이 찍힌 사진,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Henri Cartier-Bresson)이 촬영한 미국 어딘가 새겨진 'GOD BLESS AMERICA' 라는 문구의 기념 사진, 1972년 존 레논(John Lennon)과 오노 요코(Yoko Ono)가 "WAR IS OVER IF YOU WANT IT"이라는 슬로건을 남긴 포스터, 그리고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느와르 미국 영화들의 타이틀 등, 사이먼 몰리 작품에 등장하는 텍스트들은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먼 몰리는, 디지털 작업 방식을 이용해 선명도를 저하시킨 원본 이미지에 신속한 채색 작업을 합니다. 채색되어 형태가 불분명해진 텍스트 위에는 각기 다른 색상의 직선형 수직 평행선을 그립니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직형 평행선의 색상은 직관적으로 선택되며, 이렇게 선택된 색상은 DMZ 주위의 풍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선택한 색깔들은 작품에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작품 속 두 개의 수직선이 평행한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형태가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경계선으로 사용된 38선을 암시하고 있으며, DMZ의 위치와 역할을 상기하는 계기로써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의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또 다른 시리즈인 UTOPIA - DMZ 주위의 식물을 착시화로 채색한 수채화 작품과, 두 개의 평행선이 복사 광원 앞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새로운 비디오를 공개합니다.

사이먼 몰리의 전시 'PARALLEL'에서는, 서양 작가의 관점으로 본 대한민국의 38선(38 Parallel)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먼의 전시를 앞두고,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남북한의 정상들이 대담을 나누거나, 남북을 서로 방문하며 종전선언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가 하면,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통일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간 남북 간에 지속하여 왔던 갈등과 불신으로, 속단하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평화와 화합을 향해 나아가는 한반도의 변영과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곽혜신**

한미갤러리 대표  
2018년 10월

# PARALLEL

An Exhibition by SIMON MORLEY

한미갤러리 서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08-12

2018년 10월 26일 (금) - 12월 22일 (토)

목. 금. 토 2 - 7 pm, 이외의 요일은 예약 관람 가능

T. 070 8680 3107

M. 010 3669 8897

E. [seoul@hanmigallery.co.uk](mailto:seoul@hanmigallery.co.uk)

W. [www.hanmigallery.co.uk](http://www.hanmigallery.co.uk)

사이먼 몰리(Simon Morley)는 1958년 영국 Eastbourne 출생하여, 2010년부터 한국과 프랑스 중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원 조각 비엔날레, 리얼 DMZ 프로젝트, 서울 시립 미술관, 테이트 브리튼과 같은 그룹 전시회 참여한 바 있으며, 그의 작품은 프랑스 디종의 Musee des Beaux-Arts와 서울의 Art Sonje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유럽과 동아시아에 걸쳐 국제적으로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저자이기도 한 사이먼 몰리는 최근 그의 저서 "Seven Keys to Modern Art"는 2019년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2020년 한국어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